

# “라오스에 부처님 자비 전해요”

### 불광사 봉사단 라오의 산들바람... 반틴마을에 틈은 초등학교 개원

부산 초읍 불광사(주지 보광) 봉사단체 라오의 산들바람(회장 지준)이 라오 반틴마을에 9월 1일 틈은 초등학교를 개원했다. 이로써 반틴마을 80여명의 아이들은 꿈에 그리던 쾌적한 교실을 갖게 됐다.

라오의 산들바람은 2012년 불광사 김동현 총무와 주지 보광 스님의 원력으로 만들어진 후원단체다. 150여 명의 후원 회원들은 1인 1후원계좌를 만들어 매달 만 원씩 라오의 아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며 꾸준히 후원을 해오다가 이번에 학교건립에 이르렀다.

라오의 산들바람은 후원자가 될 경우 라오스 학교 후원 불자회라는 수첩을 발급해 주는데 수첩 속에는 1대 1결연을 맺은 아이의 사진과 인적 사항이 적혀있다. 이를 통해 라오스 산들바람 회원들에게는 반틴마을 아이들의 삶을 꾸준히 도와준다는 의식을 갖게 해 준다.

또한 이 마을 빈곤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돼지선물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학생들의 부모 대다수가 생계수단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돼지 한 마리를 선물하여 근본적인 가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다. 선물한 돼지가 후에 새끼를 낳으면 가족들이 돼지 한 마리 값을 다시 불광사 측에 환원토록 해 그 금액으로 다른 가정에게 돼지를 보시하는 운영 방식이다.

불광사의 보시행은 국내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불광사는 8월 28일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 내



불광사 봉사단체 라오의 산들바람이 라오 반틴마을에 틈은 초등학교를 9월 1일 개원했다. 사진은 봉사자들이 학생들에게 후원 물품을 나눠주는 장면.

### 150여 회원 1:1 결연 후원

### 릴레이로 돼지 각 가정에 보시

### 염불봉사 등 국내서도 보현행

에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을 실시했다. 이는 불광사의 자원봉사 단체인 염불공덕회(회장 유리광) 3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에 실시되고 있다.

불광사의 또 다른 봉사단체인 화합회 20여명은 불광사 신도들이 자신 또는 가족들의 생일날 부처님 전에 떡을 올리는 대신 쌀 10kg을 보시한 것을 모아 몸이 불편한 지역 장애인에 비롯한 한부모 가정에 쌀을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화합회는 불광사의 생일

맛이 보시쌀로 자비를 실천하고 있으나 부족할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 일한 보시금을 모아 정기적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쌀을 회향하고 있다. 또한 염불공덕회의 이름답게 무료 염불봉사도 불광사 봉사회의 주요 소임이다.

주지 보광 스님과 염불공덕회 5명은 형편이 어려워 49재를 모시기 어렵거나 혹은 주변 소외된 이웃들 중 갑작스레 세상을 떠날 경우 장례식장을 직접 찾아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회원들은 금강경 독송을 하고 주지 보광 스님은 입관까지 직접 참여해 고인의 넋을 물론 유족들에게 위로로 전한다.

장소가 장례식장인 만큼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생과사를 뛰어넘은 불교의 교리와 의식



무료급식소 봉사를 펼친 보광 스님과 염불공덕회 봉사자들

은 유족들에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계기와 더불어 고인과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한다.

6년 넘게 불광사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유리광 염불공덕 회장은(55) “우리 불광사 봉사의 가장 큰 행동 지침은 바로 ‘원하는 대로’이다. 신도들이 행복할 얼굴로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광사 신도로서 타인에게 베푸는 기쁨이 있어 행복하다”며 어려운 이들에게 회향하는 마음을 강조했다.

한편 라오스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라오의 산들바람 후원은 불광사 신도가 아니어도 누구나 동참 가능하다. (051)809-1420

김나영 객원기자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찰문화 교육

### 지건 스님 강사 초빙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위탁운영하는 경남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기련)이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사찰음식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

8월 29일 복지관 내 3층 소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과의 연계로 청주 월명사 지건 스님이 강사로 초청됐다.

올해 실시된 2014 자원봉사교육은 지금까지 진행됐던 봉사에 대한 기본 교육과 달리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사찰문화를 알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는 “지난 간담회 때 체험 위주의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이 사찰음식을 배우고 있다.

### 색다른 체험 활동 제공

### 8월 29일 복지관 소강당서

데 의견이 잘 반영되어 만족스러웠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위해 마음을 내어주는 봉사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전문교육뿐만 아니라 색다른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영 객원기자

# 부산 생명나눔 유관기관 합동 홍보 캠페인

### 9월 1일~ 3일 부산시청서 진행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9월 1일~ 3일까지 부산시청 1층 도시철도 연결통로에서 2014년 장기사업팀과 (재)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부산지부와 함께한 이 행사에 부산시민이 장기기증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행사다.

프로그램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 안내 및 신청접수 △희망과 나눔의 무지개 △조혈세포 기증희망 등록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희망과 나눔의 무지개코너에서는 부산시민이 직접 작성한 난치병환우들에게 전하는 희망메시지 전시 및 후원회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생명나눔 캐릭터와 포토존 운영,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에게 즉석사진 촬영, 생명나눔 화살쏘



생명나눔 화살쏘기 프로그램에 도전하고 있는 참가자

기 '나눔에 꽃피다' 도 진행해 생명나눔에 대한 관심을 모았다.

김나영 객원기자

# “환우 아픔 나누는 시간 되었습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8월 27일 루게릭 환우를 위한 '아이스버킷'에 동참했다.

###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아이스버킷 동참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8월 27일 루게릭 환우를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심산스님은 8월 26일 이준성 부산시재가노인복지협회장으로부터 아이스버킷 챌린지 대상으로 지목 받은 후 환우들의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는 마음을 대중과 함께 나누고자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심산 스님은 “아주 잠깐이지만 루게릭을 앓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누고 싶었다. 환우들을 위

해 기도하겠다. 모두들 힘내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심산 스님은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후 해운대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이계영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총장, 구본일 BTN불교TV 사장을 다음 챌린지의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편 루게릭은 근력 약화 및 근 위축을 특징으로 언어장애, 호흡기능 저하 등 만성 퇴행성 증상을 가진 희귀질환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 불국사, 월산 대종사 추모다례식

### 8월 29일 경내 부도탑 앞서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경주 불국사는 성림당 월산 대종사 17주기 추모 다례식을 8월 29일 경내 부도탑 앞에서 봉행했다.

월산 대종사는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멀리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남긴 바 있다. 행사는 불국사 합창단 ‘다시 오소서’의 추모 노래에 이어 내빈소개와 함께 스님, 대중의 헌화로 이어졌다.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은 추모사에서 “스님께서는 ‘인생을 두고 돌

았지만 한발도 움직이지 못했다. 본래 그 자리. 깨달고 보니 부처, 조사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다 존재한다’는 오도송을 남기셨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문중 문도들은 가풍을 계승 발전시키자면서 후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추모사에 덧붙였다.

한편,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월산 대종사 문도대표)은 “주지소임을 다한 지금, 그동안 협조에 감사했고 미비했던 점에 대해 용서를 바라면서 오늘 추모 다례식에 많은 분



월산 대종사 17주기 추모 다례식

들이 참석해 감사하다”는 마지막 인사로 불국사 주지소임을 마무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도모집

### 종정 명진 석법운 대종사



종정 명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 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 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원로의장 보운

원로총무 수덕 원로위원 해산  
원로위원 월각 원로위원 해담  
원로위원 흥원

### 총무원

총무부장 (대행) 재무부장 월산  
교무부장 선각 문화부장 한담  
규정부장 해오 법규위원장 설산  
신도회장 조태환 사업부장 이재철

### 총무원장 (대행)

행정원장 도경 사정원장 법륜 문화원장 진송  
교육원장 청담 포교원장 동화

### 종무원

경북1총무원장 월정 경북2총무원장 성덕  
경북4총무원장 해산 대구2총무원장 해산  
대구1총무원장 광덕 경기총무원장 원담  
충북총무원장 계현

###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충본산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중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매불이운), 대령, 관육, 응호계(신중작법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사시,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사시, 구병사시,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송,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시,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충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